

2018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8년 7월 26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윤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23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7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7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일부 위원들은 위원협의회 개최에 앞서 제Ⅲ장의 ‘주요 고려사항’에 인플레이션 변동요인, 재정정책 기조 및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상황과 관련된 이슈를 수록하되 최근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상황 점검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제Ⅱ장중 ‘금융안정’ 부분의 도입부에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단을 추가하고, 부록의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에는 지난 7월 회의에서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개요의 국내 금융시장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제Ⅰ장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 실물경제 부분에서 최근에 취업자수 증가규모 축소의 정도가 작지 않은 수준임을 반영하여 소제목에 ‘큰 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가계대출동향을 표현한 소제목이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가계대출 변동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분기대비보다는 전년동기대비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대출은 지난해 감소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본문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요 고려사항’ 중 ‘인플레이션 변동요인 및 시사점’에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관련 표현을 일부 수정하자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의 재정정책 기조’를 분석한 부분에서 구조적 재정수지 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외에도 위원들은 미 연준 금리인상의 가속화, 기초적 물가흐름, 서비스물가 상승 제약요인, 재정 충격지수에 대한 설명 등과 관련하여 일부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8년 7월)(생략)